

한국-일본 섬유 합동회의 개최

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섬유회의를 개최한다.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5일 일본 오사카 데이코쿠(帝國)호텔에서 제23차 <한국-일본 섬유업계 연차 합동회의>를 개최한다고 10월29일 발표했다.

섬유 합동회의에는 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 회장과 시모무라 아키카즈 일본섬유산업연맹 회장 등 양국 섬유업계 대표 60여명이 참가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양국 섬유업계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의 대응방안,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현황과 활용사례, 환경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9/10/29>